



Humani Objects

Charwook Min
2022.06.21 - 07.03

최근 기계는 효율성과 정확도를 위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휴머노이드 오브젝트>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행동 중 하나인 ‘낙서’를 하는 기계이다. 낙서는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드러내는 아주 은밀한 자기 표현수단이다. 작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낙서’를 기계가 모방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계를 인격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기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담론을 제시한다.

이번 작품은 휴머노이드 오브젝트 프로젝트 중 세 번째 시리즈이다. 이전 작품, 휴머노이드 오브젝트 #1, #2에서는 불규칙한 선을 그리는 모습 그리고 작가의 낙서를 바탕으로 기계가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휴머노이드 오브젝트 #3은 기계가 스스로 시를 통해 낙서를 생성하고 그려나가는 모습을 표현한다. 기계는 일상생활 속 사용되는 단어를 통해 낙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새로운 낙서를 생성하여 그것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변환하여 생각과 감정을 써내려간다.

민찬욱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에 영감을 받아 작업 활동을 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개념과 범위의 변화들을 관찰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현실세계 사이의 경계를 작품으로 구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https://chanwookmin.com>

휴머노이드 오브젝트 Humanoid Objects

민찬욱 개인전

2022.06.21 - 07.03

12:00 - 18:00

갤러리 도스(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7길 37)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